

# “세계의 소외된 이들에게 자비 손길을”

## 불교계 NGO 월드머시코리아 2014 신년사업 발표

불교계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머시코리아(대표 현진 스님)가 올해 국내외를 넘나드는 다양한 구호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월드머시코리아는 최근 2014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베트남 학습환경개선 사업 △미얀마 장학금 지원사업 △영등포 관내 초중고교생 장학금 지원 △정읍 빈곤가정 자녀 장학금 지원 △종립대 학생 장학금 지원 △군부대 지원 사업 △동국대 참사랑 봉사 연계사업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장학사업이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영등포 관내 초중고교생 장학 지원사업은 경제문제로 학업정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40명에게 연간 총 2400만원이 지원된다. 월드머시 코리아는 이를 위해 영등포구청과 협약을 맺고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연계한 학생들에게 매월 5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자원봉사교육 등 멘토교육도 진행한다.

정읍 빈곤가정 장학금지원은 정읍 내 학생 20명에게 총 1440만원이 전달된다.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도 진행해 일반대학은 5명에게 연 1회 100만원, 종합 동국대는 동국대 참사랑봉사단 학생 10명에게



2012년 동국대 참사랑봉사단과 함께 카자흐스탄 해외봉사 활동을 전개한 모습. 하단 왼쪽 다섯 번째가 월드머시코리아 대표 현진 스님.

### 베트남·미얀마 교육·장학사업 전개 국내 동국대 및 저소득 학생 돕기도 현진 스님 “불자들 자비행 참여 절실”

계 연 1000만원이 지원된다. 외국인 유학생 교육 지원도 진행해 국내 대학에 유학 온 아시아지역 승려유학생들 3명에게 여학원 등록비 및 대학등록금, 생활비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문호 월드머시코리아 사무처장은 “우

수한 역량을 가진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학업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불자리더로 키우고자 함”이라며 사업계획을 소개했다.

월드머시코리아는 ‘사회와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로 한 발 나아가기 위해 국제 구호 활동도 전개방향으로 설정했다. 베트남 푸엔성과 호치민시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베트남 전 당시 한국군 3개부대가 주둔하며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는 이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다. 또 이들 중 일부를 특별장학생으로 한

국으로 초청할 계획이다.

베트남 화페로 약 45억 동(한화 약 2억 2000만원)이 지원되는 이 사업은 푸엔성 및 호치민시 지역 학생 500여 명에게 장학금이 지원되며 학교건립 및 기존학교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대규모 행사다.

국제 구호활동으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미얀마 레부마을을 중심으로 지역내 학생 116명을 지원하는 한편(1160만원) 자연재해로 피해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사업도 진행된다.(1000만원)

대표 현진 스님은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무지와 굶주림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다. 지구촌에 산재돼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교육과 복지 지원에 대한 한국을 비롯한 국제시민사회단체의 기여와 참여가 더욱 절실해 필요할 때”라며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월드머시코리아는 27일 여의도 포교원 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은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월드머시코리아는 ‘나와 세상이 불이(不二)’이며, 자비 실천이 인류 구원’이란 모토로 2011년 3월 출범한 국제구호NGO로 긴급구호 뿐만 아니라 NGO네트워크를 통한 각종 캠페인과 봉사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후원 문의 (02)784-9136

노덕환 기자 noduc@hyunbul.com

## 故 신정원 스님, 미얀마 학교 1억원 기부

일본에서 한국 불교를 포교해온故 신정원 스님(사진)이 기탁한 1억6백여만원이 미얀마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쓰인다.故 신정원 스님은 일본 오사카에 청광사를 창건해 일본에 한국불교를 포교하는데 일생을 바쳐왔다. 상좌인 상일 스님과 청광사 주지 탁연 스님은故 신정원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후원금을 국제구호단체인 더프라이미스에 전달했다.

더프라이미스 측은 기부금을 미얀마 뽀타노 지역 오보중학교 측에 전달할 것이라



고 밝혔다. 이곳은 1954년 설립돼 붕괴 위험에 처한 상태로 현재 316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책걸상도 부족해 바닥에 앉

아 수업을 받는 상황이다. 후원금은 신축 건물 1채와 책걸상 지원에 사용된다. 올 11월 건물 착공 후 2015년 완공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 위안부 할머니 인권센터 건립된다

### 나눔의집, 28일 착공식... 김화선 할머니 기탁금 밀거름

위안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며 기부한 돈이 일본군 위안부의 참상을 알리는 피해자 인권센터 건립에 쓰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모여 지내는 나눔의집(원장 원혜)은 2월 28일 위안부 피해자 인권센터 건립 착공식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광주 퇴촌면 나눔의집 인근 터에 총 45평 지상 3층 건물로 지어질 인권센터는 주로 세미나, 교육 용도로 사용된다. 1층은 사무실과 전시실, 2층은 세미나실과 자료실, 3층은 숙소로 쓰일 예정이다.

건립에는 2012년 6월 별세한 김화선 할머니가 나눔의 집에 기탁한 6천만원이 쓰였다고 밝혔다. 16세 때 싱가포르에 강제 징용당했던 김 할머니는 해방 후 대전에서 혼자 생활하다 2008년 나눔의집에 입소했다. 할머니는 평소에도 보시행으로 주위 사람에게 귀감이 됐다. 남의 눈발 일을 하면서 마련한 장학금으로 학업을 포기하려던 대학생 23명을 졸업시키기도 했다. 나눔의집 인신권 소장인 “김 할머니의

기부금을 뜻있게 쓰고자 인권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외국인들이 위안부 피해에 대해 알고자 일부러 이곳까지 찾지만 한번 둘러보고 마는 것에 아쉬웠다. 나이가 일제의 만행을 알리는 데 앞장설 전문활동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인권센터는 김 할머니의 기부금을 받은 이후로 즉 모연활동을 해왔으며 총 예산 5억원 중 3억원을 모금한 상태다.

안 소장은 “위안부 피해는 역사와 인권 문제”라며 “인권센터를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알리는 장소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나눔의집에서는 ‘2014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제’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3.1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기원하며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목요일 이어 살풀이 춤, 헌화, 추모사가 낭독됐으며 뮤지컬 꽃신 배우들의 공연도 펼쳐졌다. 031)768-0064 배현진 기자

## “꿈에 대한 자신감 생겼어요”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의지나눔 6기 수료식



원경 스님이 의지나눔 수료증을 수여하고 있다.

피 만들기 매력과 재미에 빠지게 됐다. 직업 멘토링에는 63파빌리온 뷔페 추태진 바리스타가 재능기부했다.

유세영(16.전농중 3) 학생은 이 프로그램 덕분에 바리스타 2급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유세영 학생은 “학업과 자격증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끈질기게 도전해 합격하는 뿌듯함을 안았다”며 “의지나눔이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난 해 3월부터 20여 차례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50명의 학생들은 학예연구사, 언론인, 아쿠아리스트, 연극인, 증권투자자, 공연설비기사 등 다양한 직업군 체험을 거쳤다.

상임이사 원경 스님은 “꽃에게는 저마다 꽃피는 시기가 따로 있듯, 삶에도 다양한 모습이 존재한다”며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삶을 위해 다들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주었으면 한다”며 꿈을 찾아 나갈 학생들에게 건투를 빌었다.

의지나눔 7기 참가자 모집은 3월부터 시작된다. 배현진 기자

## 1km마다 100원씩 모금...탈북자녀 장학금

### 진오 스님, 15일 11명에 220만원 전달



진오 스님(사진 가운데)이 삼전강 마라톤을 통해 마련한 통일장학금을 탈북자녀들에게 전달했다.

사단법인 꿈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은 2월 15일 북한이주민 자녀 11명에게 22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통일장학금은 ‘마라톤 스님’으로 유명한 진오 스님이 삼전강 자전거길 148km를 뛰면서 1km마다 100원씩 모금해서 마련했다.

진오 스님은 “북한이주민은 미리 온 작은 통일이다. 남한 정착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남북통일에 쓰여져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통을 참고 뛰었다”고 이주민 자녀들을 격려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은 영남대

학교에 입학했지만 기숙사비 120만원을 해결하지 못해 곤란을 겪던 상황이었다.

현재 남한에 있는 북한이주민은 약 2만 6천여명. 이번 장학금을 주관한 북한이탈 청소년그룹 ‘오뚜기심터’ 측은 “탈북 자녀들이 귀중한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통일 장학금이 지역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꿈이루는사람들은 2000년부터 구미이주노동자상담센터, 외국인센터,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센터, 다문화달팽이 모자원, 북한청소년 오뚜기심터 등 이주민 인권보호 사업을 전문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다. 배현진 기자

## 청호불교복지우수상에 주민정·임미영 씨

### 연구부문 포함 7명 선정

사회복지현장의 우수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청호불교복지 우수상에 주민정씨와 임미영씨 수상 영예를 안았다.

청호불교문화원(이사장 이종욱)은 제3회 청호불교복지상에 주민정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부장의 ‘불교식 상·장례문화 보급 민 봉사단 운영’ 과 임미영 파라밀 요양원 부장의 ‘지역주민과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우수상으로 선정했다. 장려상에는 이왕옥(법동종합사회복지관)씨의 ‘남북주민 통합역량 강화 프로그램’, 조민지(옥수종합사회복지관)씨의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여철환(늘기쁜 마을)씨의 ‘정토의 하얀 연꽃’, 양수경(중



주민정 씨



임미영 씨

로노인종합복지관 양수씨의 ‘전문노인해설봉사단’ 등이 뽑혔다.

연구업적부문에는 20여 편의 논문 중 ‘초기불교의 사회적 실천’을 제출한 김재영 동방불교대학 교수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2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청호불교문화원 4층 강당에서 열린다. 우수상 500만원, 장려상 200만원, 연구상 300만원이 상금으로 수여된다. 배현진 기자

# 본원중 부설 불교의식대학 범음범패 제 9기 학인모집

- ▣ 교육기간 : 1년
- ▣ 개강일 : 2014년 3월 3일 오후 2시
- ▣ 수업일시 : 주 1회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 교육내용 : 기초 도량석, 종성, 아침, 저녁, 예불, 거불, 복창계, 요잡바라, 도량계, 다계작법, 49재 및 천도재, 각단 불공 및 사찰의식 전과정.
- ▣ 원서접수 : 수시모집 (FAX 02)379-2746)
- ▣ 입교자격 : 불교의식에 관심있는 스님과 행자 재가불자
- ▣ 교육장소 : 서울 종로구 평창동 417-3 본원중 총무원
- ▣ 수강료 : 월 일십만원 (100,000)

접수문의 : 02)391-4376. 010-9993-6340

※ 시간은 본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승가학과 강원생 모집

- 모집학과 : 승가학과 2년 과정 00명
- 강론과목 : 아리아사씨수행론, 능엄경, 초전법륜경, 원각경, 아함경, 능단금강경, 무아경, 화엄경입법계통.
- 강의시간 : - 매월 2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까지  
매월 4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까지 단, 법회일과 중복시는 휴강함.  
- 입학 오리엔테이션 및 첫 강의 : 3월 15일(토) 오후 3시 ~ 오후 7시까지
- 강의장소 : 성남 동화사 설법전 (성남시 수정구 태평 3동 3638번지)
- 수강대상 : 종단 관계없이 수행자 누구나 수강 가능합니다. (수강료 무료)
- 입학 희망 수행자는 [www.arahan.org](http://www.arahan.org)에 접속하시어 공지사항 : 승가학과 모집안내 - 좌측상단의 입학원서를 작성 후 2월 28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중앙승가대원 교학처 [팩스 031)753-3354]

사단법인 대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효원승인